

프랑스, 고속도로 자율 전기셔틀 실증으로 광역 대중교통 자동화 가능성 검증

해당국가	프랑스	기관(기업)	VINCI Autoroutes·Milla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프랑스 VINCI Autoroutes는 A10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 전기셔틀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여 파리 외곽의 광역 대중교통 도입 가능성을 검증

- 파리 남서쪽 약 50km의 A10 고속도로에서 최고 90km/h로 주행하는 약 12인승 자율 전기셔틀을 운행하여 Longvilliers 환승거점과 Massy-Palaiseau역을 약 30분에 연결
 - Longvilliers 환승거점에서 Briis-sous-Forges 고속도로 정류장을 거쳐 Massy-Palaiseau역까지 연결하여 기존 급행버스를 보완하는 광역 통근 교통수단으로 실증
 - 파리 외곽지역의 승용차 단독 이용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 수요와 비첨두시간대 이동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검증
- 프랑스 스타트업 Milla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과 VINCI의 고속도로 인프라를 연계하여 실제 고속도로 교통환경에서 차량의 자율주행과 안전한 운행을 지원
 - 카메라·레이더 등 다중 센서로 주변 교통환경을 실시간 인식하고 고속도로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소·진입 및 합류구간 등 복잡한 주행환경에 대응
 - 2025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해 2대의 자율 전기셔틀이 누적 4만km 이상을 운행하고, 2026년 3월부터 일반 이용자가 참여하는 실제 교통환경 실증으로 확대

□ 자율 전기셔틀을 기존 환승거점·급행버스 등과 연계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외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고속도로 기반의 자율·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

- Longvilliers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기존 급행버스·카풀 주차장·전기차 충전시설 등과 자율셔틀을 연계하여 광역 통근 교통의 환승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
 - 비첨두시간대에는 운행 빈도를 2배로 확대하고 첨두시간대에는 포화된 통행수요를 분산하여 이동시간과 환승 부담을 줄이고 주요 철도교통 거점에서의 접근성을 향상
 - 기존 급행버스와 자율셔틀을 연계해 승용차에서 공유·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승용차 단독 이용 감소와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
- VINCI Autoroutes·Milla·SAVAC·귀스타브에펠대학교가 인프라·자율주행·운영·평가를 분담하고 France 2030 지원을 통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
 - VINCI Autoroutes는 사업 총괄과 고속도로 인프라를 담당하고 Milla는 자율주행 기술, SAVAC은 운송서비스 운영, 귀스타브에펠대학교는 평가·연구를 담당하는 협력체계를 구축
 - France 2030의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자율셔틀을 광역도시권의 일상적인 통근수단으로 확대할 계획

※ 출처 : VINCI Autoroutes(2026.09.24), Navette autonome sur autoroute : une première mondiale pour transformer les mobilités du quotidien